

'2026 화순 봄꽃 축제' 4월 17일 개막

꽃·공연·체험이 어우러진 봄꽃 야행(夜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봄의 절정을 맞아 '2026 화순 봄꽃 축제'가 화순읍 꽃강길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매일 15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며, 꽃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풍성한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꽃강길 일원에는 유채꽃을 비롯한 다양한 봄꽃이 장관을 이루며, 2.1km 구간에 조성된 봄꽃 단지과 유채꽃 단지는 방문객들에게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5개의 테마정원은 17종의 초화류 20만 주로 구성되어 유채꽃 단지과 어우러진 대표 포토존으로 조성됐다.

하니움문화포츠센터 공설운동장장주무대에서는 17일 18시 개막식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18일 19시 별과 이석훈의 봄밤 콘서트 PART 1, 19일 19시 서도밴드와 거미의 봄밤 콘서트 PART 2가 이어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니움문화포츠센터 회랑 옆 잔디광장에서는 버스킹, 마술, 재즈 공연 등 다양한 소규모 참여형 공연도 곳곳에서 펼쳐져 관람객과 가까이 호흡하는 축제를 만든다.

남산공원은 축제 기간에 야외 전시 관람형 축제로 운영된다. 남산 전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구성해 다양한 미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4월 25일 고인돌 전통시장에서는 12시부터 '와글와글 모이장'이 운영되며, 같은 날 14시 화순시네마에서는 화순 작은 영화제가 열려 지역 산업인 관광과 농동을 주제로 한 영화 상영과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주말(토·일)에는 무료 셔틀버스 3개 노선이 운영된다. 화순구청에서 출발해 고인돌시장을 경유하는 A코스, 녹십자 입구를 왕복하는 B코스는 15시부터 21시까지 상시 운행되며, 고인돌공원을 왕복하는 C코스는 15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6회 운행된다.



또한 축제장 인근 꽃강길 음악분수대에서는 축제 기간 매일 14시, 18시, 19시, 20시 총 4회 음악분수가 운영되어 축제장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조형체 관광체육시설은 '꽃과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이번 봄꽃 축제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분이 화순을 찾아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주환 기자

고흥우주항공축제, 더현대 서울서 '국내 최초 우주축제 팝업' 개최

서울에서 체험하고 고흥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축제장 방문 유도 본격화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에서 '고흥우주항공축제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항공축제인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이번 팝업은 '지구 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 전시를 넘어 실제 체험형 콘텐츠와 몰입형 공간 연출을 결합한 '도심형 우주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특히, 백화점 공간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 '우주항공축제 팝업'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축제 홍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고흥으로 이어지는 우주여행의 출발점'을 콘셉트로, 실제 고흥 방문으로 이어지는 관광 연계형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최고 우주기관과 협업해 콘텐츠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팝업 공간은 ▲지구 문명존 ▲우주 문명존 ▲우주인 카니발존 등 크게 세

가지 테마존으로 구성해 압도적 몰입형 체험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 문명존'에서는 누리호 발사체 축소 모형, 대한민국 발사체 발전 과정 등을 전시한다. 또한 고성능 천체망원경 관측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로봇(스파이더 로봇) 체험존이 마련돼 '우주 진입 전 단계'의 몰입감을 제공한다.

'우주 문명존'은 화성 환경을 재현한 공간이다. 붉은 토양과 암석, 특수 조명을 활용해 실제 화성과 유사한 분위기를 구현하며, 귀환선 및 우주탐사 로버 모형을 배치해 미래 우주탐사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가장 활기찬 공간인 '우주인 카니발존'에서는 우주복 착용 체험과 외계인 게임과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또한 '누리호 발사장 견학' 예약 접수대를 운영해, 현장에서 실제 고흥 방문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팝업 경험이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관광 모델을 구현한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서울에서 시작된 관심이 실제 고흥 방문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우주의 신호(Space Signal)'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 타이타이트인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비롯해 발사장 견학, 나로호·누리호 실물제 전시, 우주로 쏘아올린 나의 로켓, 우주로봇, 우주토코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나주시, 공동체 공모사업 '보탬e시스템' 교육 실시

시스템 활용 교육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지원

전남 나주시가 지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31일 '2026년 지역·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수행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보탬e시스템은 보조금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

이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다만 공모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용이 쉽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나주시는 공동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사전 컨설팅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공동체 9개소, 마을공동체 9개소,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18개소 등 총 36개 공동체 대표와 실무자 30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보탬e시스템 집행 등록과 증빙 처리, 정산 보고 절차, 유의사항 등 실무 중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 참여자들의 이해도와 활용 역량을 높였다.

선정된 공동체들은 올해 나주시 전역에서 공익활동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중도 시민행정교통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모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담양군, 고위기 아동·청소년 '마음튼튼 프로젝트' 운영

고위기 아동·청소년 심리 회복 및 건강한 성장 지원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손은아)는 정서적 위기를 겪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심리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오는 10월까지 '마음튼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선 지능, 자살·자해 위험, 우울·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종합 심리 평가와 상담, 치료비 지원,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한 지원한다.

특히 담양군 고흥사랑기금 지원을 통해 더욱 폭넓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위기 징후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하고, 종합심리평가(Full Battery)를 통해 정서·행동 및 인지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한 뒤 맞춤형 상담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울러 보호자 교육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해 가정 내 지지 체계를 강화

하고, 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지속 가능한 정서 지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손은아 센터장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에게는 조기 발견과 맞춤형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고위기 아동·청소년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한 통합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상담, 집단 프로그램, 부모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장흥군, 천명·한식 전후 산불 집중단속 실시

장흥군은 천명·한식 기간을 맞아 성묘객 및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묘지 정비 및 성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며, 특히 묘지 주변 및 산림 연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묘지 주변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화기불 소지 및 흡연 행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이

다. 아울러 읍·면과 협조하여 성묘객 이동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산림재난대응단을 집중 배치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천명·한식 기간은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내 화기 사용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재난방지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획기적인 변신 앞뒀다

2년 연속 노후관광지 재생 공모 선정... 전시관 수선공사 추진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가 2년 연속 공모 선정으로 '변신의 기회'를 잡았다.

군은 최근 '전라남도 노후관광지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사업비로는 '미디어월', '터치패널'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테마파크 내 전시관 수선공사(리모델링)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너른 야외 공간을 활용한 방탈출, 보물

찾기 등 체험형 콘텐츠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에도 같은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현재 읍·면 개장을 목표로 중앙광장 분수를 철거하고 물놀이장을 조성 중이다. 홍길동 테마파크의 정체성을 살려 전통 성벽 디자인을 적용한 점이 이채롭다.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홍길동 테마파크(홍길동로 431)는 허

군의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이면서 역사 속 실존인물인 홍길동을 주제로 꾸민 공원이자, 복원된 홍길동 생가와 산채 체험장, 국궁장, 야영장, 숙박시설 청백한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 체류 여행지로 알렸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광장 바다분수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2년 연속 전남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홍길동 테마파크의 관광 자원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갈 같은 일하고 싶은 것보다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작지만 의미 있는 문장을 읽는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기억스레 생각.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불
평범함의 평범함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 속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색감처럼. 한두 가지의 기쁨을
및 장이나 될까. 잠시. 웃어주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한 것은
평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늠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단'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 것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한
그 자체만으로도. 그
좋은 거라면. 그
은 언제나 우연치 않게
만나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